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11.13)

1. 한국의 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 관련

□ [미국 정부 동향]

- (마크 밀리(Mark Milley)) 미국 합참의장은 아베 총리와의 면담 후 ‘지소미아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며 ‘내일 한국에 가는데 그곳에서도 협의가 포인트가 될 것’ 이라고 밝힘.¹⁾
-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소미아가 없으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 고 강조²⁾
- o ‘지소미아의 근본 원칙은 한국과 일본이 어찌면 역사적 차이를 뒤로하고 지역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에 뒀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역에 던진 것’ 이라고 밝힘.

1) 「아베 만난 미국 합참의장 “지소미아, 시한 만료전 해결하고 싶다”」 『중앙일보』 (2019. 11. 12).

2) 「연합사령관 "지소미아 종료, 우리가 약하단 잘못된 메시지 위험"」 『연합뉴스』 (2019. 11. 13).